



한농연 중상연합회 소식

2002년도 시·군회장 교육 실시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3일에 걸쳐 2002년 시·군회장 교육이 한농연 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실천하는 용기로 농민운동의 새역사를”이라는 모토로 A팀(강원, 충북, 전북, 경북, 1특6광역)과 B팀(경기, 충남, 전남, 경남, 제주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새로운 도전의식과 정신무장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라는 주제로 박홍수 중앙회장의 강의를 시작으로 2002년 한농연 주요 사업계획, 2002년도 농림부 농정시책 등의 강제가 진행되었으며, 명사특강으로 농림해양수산위 권오을 의원과 음성 꽃동네 오용진 신부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한국농어민신문 황민영 사장의 ‘농민운동의 역사와 한농연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강의를 마지막 교육일정으로 시·군 회장 교육을 마쳤으며, 이튿날 아침 시·군회장과 중앙임원과의 간담회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정리하였다.

한농연 이재덕 사무총장『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및 비공식회의』감시 차 제네바 출국

2000년부터 시작된 WTO 농업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제10차 회의 및 제5차 비공식회의가 2월 4일 ~ 7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비공식회의는 지난해 3월말 확정된 2단계 작업계획에 따라 1단계 협상에서 제출한 각국 제안서에서 드러난 구체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회의로서 작년 5월 이후 다섯 번 제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Development Box, 단일품목 생산국, 소규모 섬나라 개도국, 개도국 우대 등의 쟁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 수석대표로 농림부 이명수 국제농업국장을 파견, 농업협상에 있어 모든 나라가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각국의 다양한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이고 신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에 단국대학교 장원석 교수, 농단협 김인식 사무총장과 함께 한농연 이재덕 사무총장이 『WTO협상을 위한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제10차 회의 및 제5차 비공식회의』에 감시활동을 하고자 제네바로 파견되었다.

농민단체장 청와대 오찬 간담회

지난 2월 7일 김대중 대통령과 농민단체장 200여명은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현 농업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박홍수 중앙회장을 비롯하여 농단협 김남용 회장, 한여농 김인

호 회장을 비롯한 200여명의 농민단체장과 김동태 농림부 장관, 정대근 농협중앙회장 등이 참가하였다. 이날 박홍수 중앙회장은 농가부채특별법 제정과 쌀투쟁 과정에서 진행된 농민들의 사법처리 대하여 대책을 촉구하였다. 또한 의료·교육·문화·치안 등을 총괄하는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문을 제시하였다.

한농연 「지자체공명선거 대책위원회」구성 각 도·시·군 연합회 구성 전개

지난 1월 11일 제1차 이사회에서 6·13 지자체 선거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농연 지자체 공명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 발족하기로 결의하여, 각 도·시·군 별 공명선거 대책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명선거대책위원회는 2월 18일까지 각 지역별로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농연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 한농연 출신 농·축협 조합장 동참

한농연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 1차 전달식을 마친 이후에도 한농연출신 농·축협조합장들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사랑의 쌀모으기 운동 동참 농·축협조합장

(단위 : 현물=가마/20kg, 현금=원)

- | | |
|---------------------------|---------------------------|
| • 예산 신암농협 조합장 곽호영 40,000 | • 진주 수곡농협 조합장 조정호 50,000 |
| • 청원 내수농협 조합장 장석운 100,000 | • 경기 안양축협 조합장 이치우 100,000 |
| • 대구 구미축협 조합장 김홍연 100,000 | • 전남 동부낙협 조합장 강동준 100,000 |
| • 경기 가평축협 조합장 한상우 100,000 | • 강원 평창축협 조합장 이석래 100,000 |
| • 전주 완주축협 조합장 김배옥 100,000 | |



한농연 참가 단체 동향

민간의료보험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규탄 및 부당인상 의료수가 인하 촉구 집회” 개최

지난 1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규탄과 부당인상 의료수가 인하 촉구 노동, 농민, 시민단



▲ 지난 12월 26일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재정분리 철회요구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장면

기능을 모두 승계한 기구이다. 이 정책심의위원회는 가입자 8명, 의약계 8명, 공익위원 8명으로 구성되는데, 가입자의 경우 농어업인을 대표하여 농협중앙회가 선정되고, 공익위원의 경우 의약계 인사와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선정되는 등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노동, 농민, 시민단체가 가입자의 실질적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공익위원 추천권 부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는 한농연을 비롯하여 전농,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국사회보험노조,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노동당, 인권운동사랑방 등 노동, 농민, 시민, 사회, 소비, 인권 단체 등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체 집회가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진행되었다.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새로 제정된 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하여 발족되었으나 구성원 선정문제와 대표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수가를 심의하던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와 보험료를 결정하던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의



조합장 선거 소식

4기 농·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많은 수의 한농연 회원들이 출마함에 따라 1~2월 한농연 출신 농·축협 조합장이 대거 당선되었다. "쌀값 파동과 수입개방에 따른 회원조합의 대응이 미비로 현 조합장이 고전하고 있다" 고 언론사들이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 출신 조합장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다. 이에 한농연 출신 조합장 후보들도 높은 당선률을 보이고 있다.